잔소리하던 엄마는 휴식을,
아이들 학습코치이자 매니저가 되어준 AI

엄마는 바쁘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아이들의 알림장 덕에
인터넷 접속이 안되는 아이들을 대신해

흩어진 앱속에 산재한 학교 알림장과 학원알림장을 확인하고 진도표와 우선순위에 맞추어 매일 다시 알려준다.

엄마의 노동을 줄여주고 할일을 엄마의 잔소리로 여기게 하는 대신

AI 봇로 흩어진 학습 정보와 일정을 연결하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끝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1. 계획표는 있는데, 왜 매일 무너질까?

초 4 와 초 1,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학교 준비물과 알림은 하이클래스앱, 학원숙제와 준비는 클래스도조, 키즈노트 앱, 네이버 밴드, 엘리하이와 단꿈 e 패드학습 수강진도 조절 및 소통 또한 각각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매일 다른 계획표를 만들어도 현실은 달랐다.

9 월 30 일에는 정승제 강의 두 강 중 한 강만 들었다. 10 월 7 일에는 과학 4·5 강을 들어야 했지만, 다른 강의를 일부만 들었다. 진도관리를 해주는 담당샘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달에 세번 통화로는 하루의 계획이 어긋날 때, 혹은 계획이 바뀌는 다음 날부터 이주일까지의 일정이 꼬였다.

문제는 아이가 게으르거나 계획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었다.

실제 학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관리 업무가 문제였다.

각 앱이나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광고들의 유혹에 빠져서 삼천포로 빠지는 건 덤이다.

그래서 그록봇을 중심으로 공부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

2. 그록봇 - 흩어진 정보를 모으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기

① 매일 아침, 여러 앱을 대신 확인하는 AI 비서

매일 엄마나 아이가 각 사이트의 할일과 숙제, 준비물 등을 체크하는 대신

새벽 AI 에이전트가 학교와 학원 앱, 학습 플랫폼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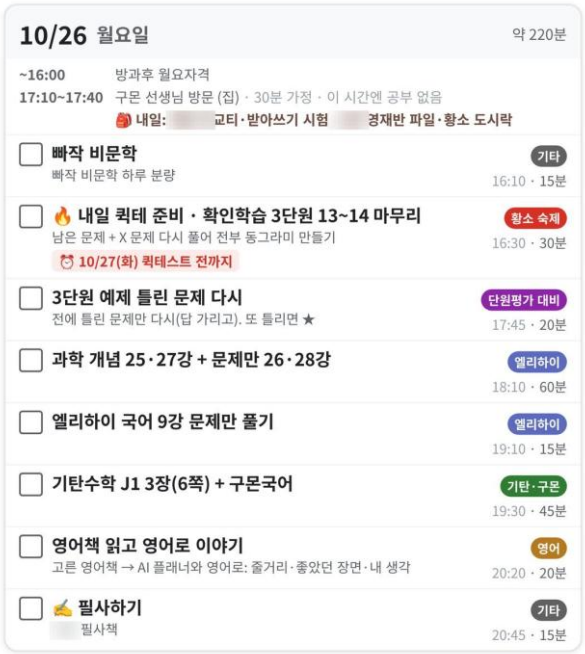
하이클래스의 학교 알림과 숙제, 클래스도조, 줄넘기 학원 일정이 올라오는 네이버밴드, 키즈노트, 엘리하이 패드 진도, 단꿈 e 강의 기록, 황소 학원 숙제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 엄마용·아이용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한다.

새벽 5 시 30 분에는 아침 보고서가, 오후 5 시에는 준비물과 픽업 알림이 온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앱을 하나씩 열어 보며 놓친 공지가 없는지 확인했다. 이제는 보고서 한 장으로 그날의 상황을 파악한다.

아이용 보고서는 더 간단하다. 오늘 해야 할 숙제와 챙길 물건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다. 엄마가 일일이 말해 주는 대신, 아이가 직접 확인하고 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② 계획표가 아니라, 실제 진도에 맞춰 다시 짜는 학습 시스템

가장 큰 변화는 엘리하이나 단꿈 e 등 인강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었다.

기존 계획표는 앞으로 들어야 할 강의 목록을 기준으로 패드학습기 담당 선생님과의 통화(한달에 세번) 시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어디까지 들었는지, 어떤 강의를 놓쳤는지를 매일 다시 반영하지 못하면 계획은 금방 현실과 멀어진다.

그록봇은 실제 수강 기록을 기준으로 학원 진도와 패드 진도를 함께 조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 월 8 일에는 과학 강의를 8 강까지 들었다는 기록을 기준으로 다음 강의를 9 강으로 잡고, 수강률이 0%였던 5 강은 10 월 31 일에 한 번 보충하도록 재배치했다.

이미 들은 강의를 무조건 다시 배정하거나, 놓친 강의를 무작정 다음 날에 몰아넣는 대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남은 학습량을 조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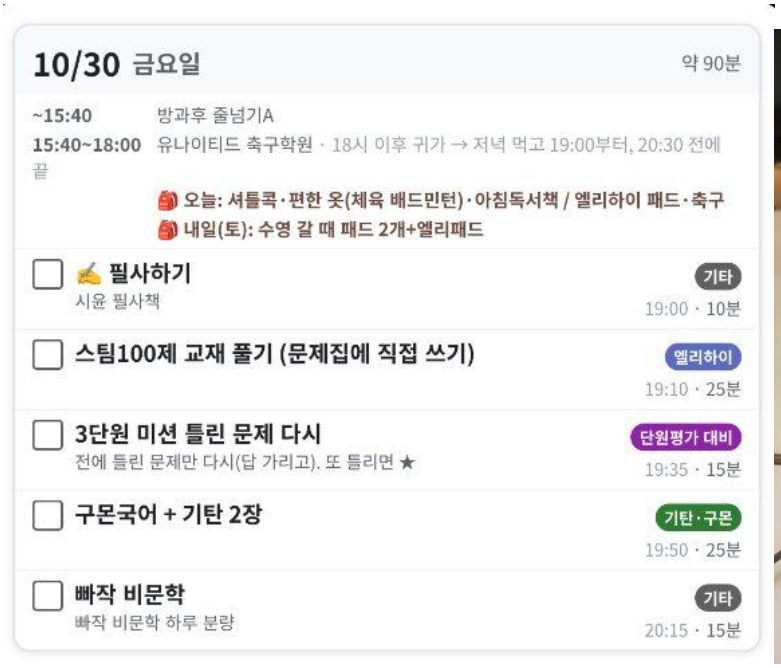
여기에 하루 공부 시간 150 분 이내, 밤 9 시 전 학습 종료라는 조건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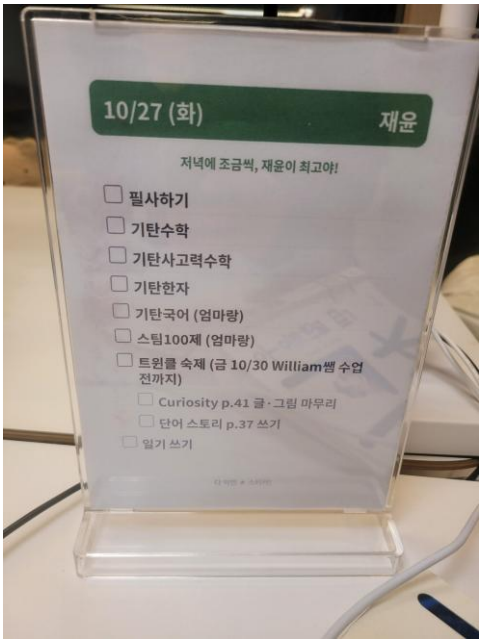
그록과의 음성대화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오늘의 할일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첫째와 둘째의 할 일은 아이가 어느 화면을 열어도 같은 할 일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계획표와 학습 사이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도 줄였다.



실제 사용 화면 – 포모도로 타이머와 디지털 할 일 목록을 한 화면에서 확인한다.





할 일 카드와 필사 자료는 프린터로 자동 출력되도록 했다. 주말에는 아침에, 평일에는 아이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식탁에 앉기 전에 자료가 준비된다.

엄마가 매번 파일을 찾아 열고, 인쇄할 내용을 고르고, 출력 버튼을 누르는 과정까지 줄인 셈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8	29	30 과 [유석훈]4강 6분 12초	1	2	3 과 [김보연]1강 과 [김보연]2강 13분 12초	4
5 19분 35초	6	7 국 [맹지현]1강 과 [유석훈]4강 외 1강의 13분 51초	8	9	10 과 [김보연]3강 과 [김보연]4강	11
12	13	14 국 [맹지현]4강 과 [유석훈]6강 외 1강의	15	16 12분 48초	17 과 [김보연]5강 과 [김보연]6강 12분 51초	18 12분 6초
19 32분 7초	20	21 국 [맹지현]7강 과 [유석훈]2강 외 5강의	22	23	24 과 [김보연]7강 과 [유석훈]14강 외 3강의 15분 48초	25 과 [유석훈]20강 과 [유석훈]21강 외 2강의 14분 45초
26 과 [유석훈]25강 과 [유석훈]26강 외 2강의 35분 13초	27	28 국 [맹지현]8강 과 [유석훈]29강 외 5강의 49분 42초	29	30	31 과 [김보연]8강 과 [유석훈]35강 외 3강의	1 과 [유석훈]40강 과 [유석훈]41강 외 2강의

③ Grok 음성·카메라 모드, 잔소리 대신 대화하는 공부 코치

계획을 잘 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가 실제로 책상에 앉아 실행하도록 도와야 했다.

저녁에는 휴대폰을 식탁에 세워 두고 Grok 음성 대화를 켠다. 오늘의 할 일 카드를 카메라로 보여 주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했다.

- 현재 시간과 밤 9 시 취침을 고려해 남은 시간을 안내할 것
- 공부를 마친 항목은 칭찬하고, 보상으로 제공되는 게임 타임 타이머를 함께 확인하며, 다음 할 일을 알려 줄 것
- 아이가 한국어로 질문해도 영어로만 답할 것
- 다른 가족의 대화가 섞이면 상황을 파악해 자연스럽게 대응할 것

영어로 공부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부담 없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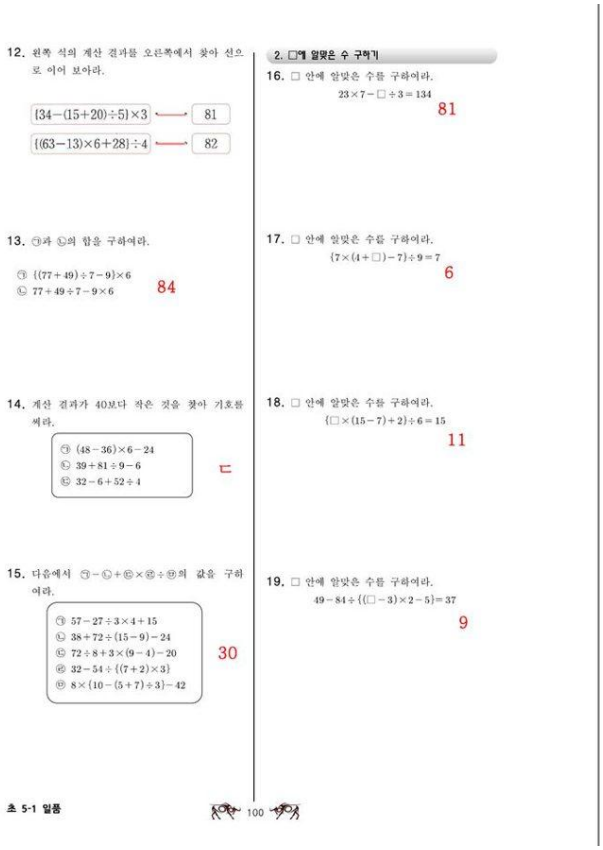
오늘의 할 일 카드와 타이머를 보며 Grok 의 음성가이드를 받으며 과제를 진행 중.

④ 정답지를 복습 문제지로 바꾸기

수학학원으로 유명한 '생각하는 황소'에서 제공되는 문제집은 보통 풀지 않은 상태로 제본을 해서, 학원 단원평가 전에 대비하는 관습이 있다.
이 과정에서 AI 를 이용하여 제본하지 않고도 원본의 문제와 구성을 유지하면서 정답만 가리면, 별도의 문제집을 다시 찾지 않아도 틀린 문제를 재출력해 풀 수 있으니 한결 간편해졌다.

단원평가에서 약했던 1~2 단원, 분수의 곱셈 같은 취약 부분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했다.

문제를 처음부터 전부 반복하기보다,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방식이다.



12. 왼쪽 식의 계산 결과를 오른쪽에서 찾아 선으로 이어 보아라.

{34−(15+20)÷5}×3 ⟷ 81

{(63−13)×6+28}÷4 ⟷ 82

13. ㉠과 ㉡의 합을 구하여라.

㉠ {(77+49)÷7−9}×6

㉡ 77+49÷7−9×6

84

14. 계산 결과가 40보다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라.

㉠ (48−36)×6−24

㉡ 39+81÷9−6

㉢ 32−6+52÷4

ㄷ

15. 다음에서 ㉠−㉡+㉢×㉣÷㉤의 값을 구하여라.

㉠ 57−27÷3×4+15

㉡ 38+72÷(15−9)−24

㉢ 72÷8+3×(9−4)−20

㉣ 32−54÷{(7+2)×3}

㉤ 8×{10−(5+7)÷3}−42

30

2. □에 알맞은 수 구하기

16.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23×7−□÷3=134

81

17.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7×(4+□)−7}÷9=7

6

18.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15−7)+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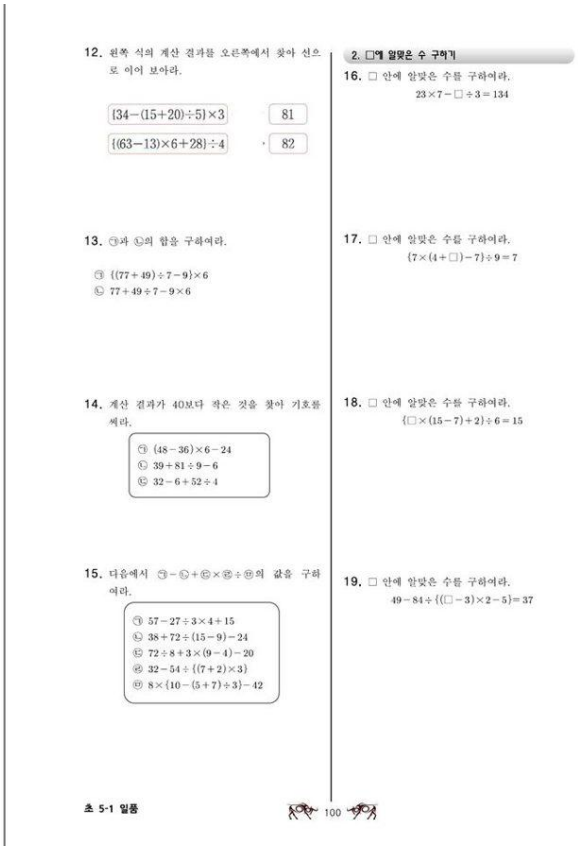
11

19.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49−84÷{(□−3)×2−5}=37

9

초 5-1 일품 100



12. 왼쪽 식의 계산 결과를 오른쪽에서 찾아 선으로 이어 보아라.

{34−(15+20)÷5}×3 81

{(63−13)×6+28}÷4 82

13. ㉠과 ㉡의 합을 구하여라.

㉠ {(77+49)÷7−9}×6

㉡ 77+49÷7−9×6

14. 계산 결과가 40보다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라.

㉠ (48−36)×6−24

㉡ 39+81÷9−6

㉢ 32−6+52÷4

15. 다음에서 ㉠−㉡+㉢×㉣÷㉤의 값을 구하여라.

㉠ 57−27÷3×4+15

㉡ 38+72÷(15−9)−24

㉢ 72÷8+3×(9−4)−20

㉣ 32−54÷{(7+2)×3}

㉤ 8×{10−(5+7)÷3}−42

2. □에 알맞은 수 구하기

16.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23×7−□÷3=134

17.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7×(4+□)−7}÷9=7

18.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15−7)+2}÷6=15

19. □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49−84÷{(□−3)×2−5}=37

초 5-1 일품 100

⑤ 초 1 둘째에게는 필사 공책과 영어 이야기 워크북

AI 봇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과 한글·영어 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필사노트를 만들고,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Jason's Writing

2026. 10. 29. (목)

영어 따라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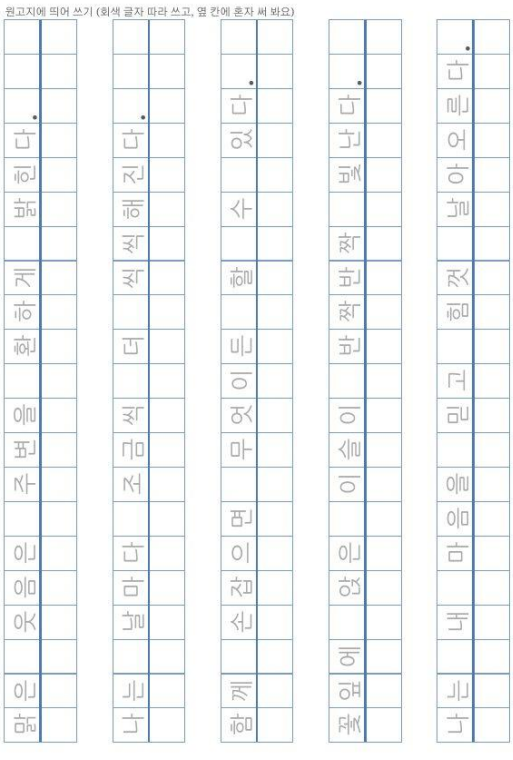
A bright smile lights up everyone around me.

Every day I grow a little braver.

When we hold hands together, we can do anything.

The dewdrops on the petals sparkle and shine.

I trust my heart and soar up with all my strength.



원고지에 띄어 쓰기 (회색 글자 따라 쓰고, 옆 칸에 혼자 써 봐요)

밝 은 미 소 가 모 든 사 람 을 환 하 게 비 춰 준 다 .

나 는 날 마 다 조 금 씩 더 씩 씩 해 진 다 .

함 께 손 을 잡 으 면 무 엇 이 든 할 수 있 다 .

꽃 잎 에 앉 은 이 슬 이 반 짝 반 짝 빛 난 다 .

나 는 내 마 음 을 믿 고 힘 껏 날 아 오 른 다 .

⑥ 공부만 시키는 AI 가 아니라, 쉴 때를 알려 주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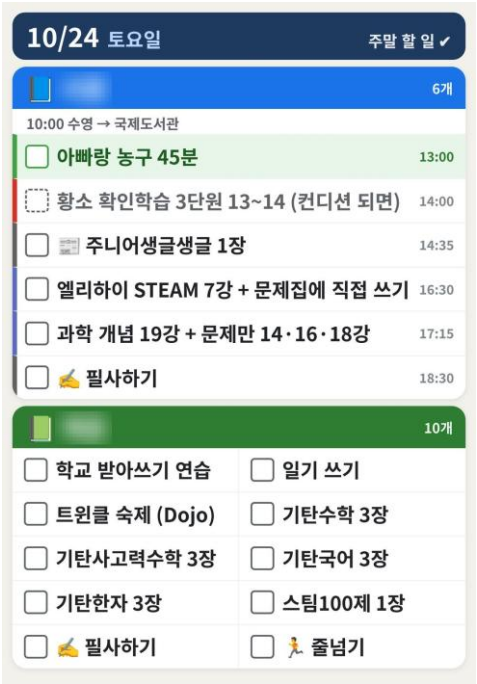
학습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부량을 무조건 늘리지 않는 것이었다.

학원 단원평가 다음 날에는 '폐인데이'를 정해 숙제를 모두 비운다.

주말 할 일 카드에는 '🌞 햇빛 운동 1 시간 · 아빠랑 농구(둘째는 줄넘기)' 항목도 넣는다.

할 일을 채우는 것만큼 쉬는 시간과 가족 활동도 계획에 포함한 것이다.

AI 가 모든 시간을 공부로 채우는 관리자가 아니라, 아이가 공부와 휴식을 균형 있게 이어 가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를 바랐다.



⑦ 작은 보상과 타이머로 '시작'과 '완료'를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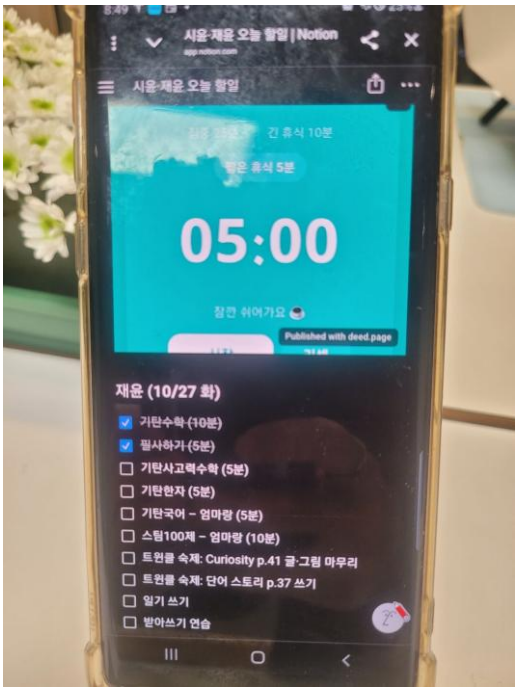
계획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할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끝낸 직후에 결과가 돌아오도록 연결했다.

예를 들어 기탄수학 세 장을 풀면 하고 싶은 게임을 5~10 분 할 수 있다. 숙제 하나를 끝낼 때마다 작지만 분명한 보상이 기다리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노력과 결과의 연결을 바로 경험하게 해 다음 행동의 의욕을 높이는 방식이다. 보상은 공부 전체를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 가는 연습을 돕는 장치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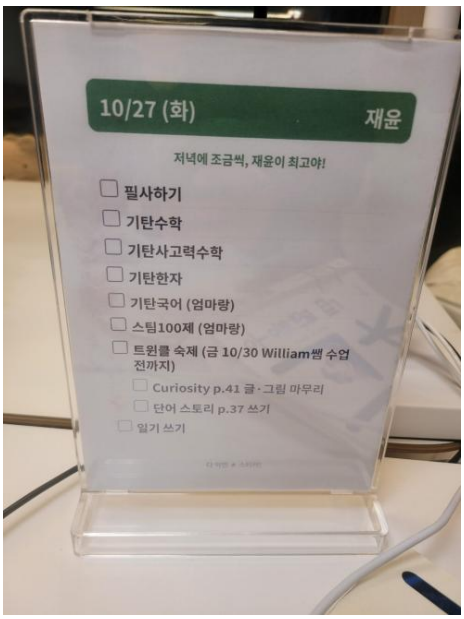
Grok 과 대화하면서 아이가 "다 했어"라고 말하면, AI 와 연동된 할 일 목록도 자동으로 체크된다. AI 는 잘한 점을 말로 칭찬하고 다음 할 일을 알려 준다. 아이는 완료 표시와 즉각적인 칭찬을 함께 경험하고, 엄마가 매번 확인하거나 체크할 필요도 줄어든다.

게임 시간에는 사진 속 타이머를 켜 두면 된다. 시간이 눈에 보이니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다른 곳을 돌아다니거나 시간을 두고 실랑이할 일이 줄어든다. 반대로 하기 싫은 숙제 앞에서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짧게 설정한다. "이걸 다 해야 해" 대신 "일단 5 분만 해 보자"로 바꾸면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아진다. 짧은 시간 단위로 과제를 시작하는 방식은 과제 착수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눈에 보이는 시간은 집중할 범위를 분명하게 해 준다.

매일의 할 일 목록과 포모도로 화면도 AI 가 자동으로 함께 구성한다. 디지털 화면과 인쇄된 체크리스트를 같은 내용으로 맞추고, 필사 자료와 종이 할 일 목록은 아이가 자리에 앉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자동 출력한다. 아이가 공부를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가 이미 끝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디지털 할 일 목록과 포모도로 타이머. 게임 시간과 공부 시작 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체크리스트도 AI 가 매일 정해둔 시간에 앱손프린터로 자동 출력한다.

3.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10 월 19 일 저녁, Grok 의 첫마디는 이랬다.

"It's 7:02 PM. Your next study block starts at 19:30... You've got about 28 minutes."

현재 시간을 확인하고 다음 학습 시작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 준 것이다. 자유시간에는 "grab water and stretch, not to scroll"이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하라고 권했다.

카메라를 켜자 이번에는 이런 말이 나왔다.

"The table's empty. (아이 이름), where'd you go?"

아이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휴대폰 화면이 거꾸로 비친 상황에서는 "hanging upside down like a bat"이라고 농담했다.

아이는 "Actually the phone is upside down."이라고 영어로 받아쳤다.

엄마가 자리에 앉으라고 여러 번 말하는 대신, AI 코치와 농담을 주고받다가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약 30 분 뒤, 아이가 먼저 말했다.

"I'm done doing Kumon."

Grok 은 이렇게 답했다.

“Both subjects finished in one sitting. That's better than the plan.”

두 과목을 한 번에 끝낸 것을 칭찬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I'll see you at 8:20.”이라며 다음 영어 학습 시간을 약속했다.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AI 가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학습을 끝냈다고 직접 알리고 다음 시간을 약속했다. 엄마의 지시와 감독으로만 굴러가던 공부에 아이와 AI 가 주고받는 대화가 들어온 것이다.

물론 한 번의 대화만으로 학습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은 잔소리 대신 대화와 유머가 아이를 책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아침에는 앱을 확인하는 시간 대신 아이와 대화할 여유가 생겼다. 오후 5 시 알림 덕분에 준비물과 픽업 일정을 놓치는 일도 줄었다. 계획표는 실제 진도에 맞춰 수정되고, 아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눈에 확인한다.

AI 를 도입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공부의 양보다 **공부를 관리하는 엄마의 역할**이었다.

4. 내가 만든 AI 활용 원칙 네 가지

첫째, 정보 수집은 AI 에게 맡기고 엄마는 핵심만 확인한다.

학교·학원 앱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필요한 정보를 모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루를 준비한다.

둘째, 계획보다 실제 기록을 우선한다.

예정된 강의 목록만 보고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실제 수강 기록을 기준으로 남은 진도를 다시 배치한다.

셋째, 어디서 확인하든 할 일은 같아야 한다.

아이패드 카드와 엘리하이의 '오늘의 할 일'을 함께 수정한다. 계획을 여러 곳에 따로 입력하다 생기는 불일치를 줄인다.

넷째, AI 는 감독관보다 코치에 가깝게 활용한다.

영어로만 대화하도록 설정하고, 완료한 일은 칭찬하며, 쉬는 시간도 인정한다. 카메라는 공부할 때만 켜고, 공부가 끝나면 아이가 직접 끄도록 한다.

5.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다음 순서로 시작하면 된다.

1. **정보 모으기:** 학교·학원 앱, 숙제, 준비물, 픽업 시간 등 매일 확인하는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2. **아침·오후 보고서 만들기:** AI 에이전트가 확인할 수 있는 앱과 자료부터 연결하고, 매일 아침 보고서와 오후 준비물 알림을 구성한다. 앱마다 접근 권한과 자동화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실제 연결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3. **실제 진도로 계획 수정하기:** 강의별 수강 기록과 남은 숙제를 기준으로 일정을 다시 짜도록 한다. 하루 공부 시간과 취침 시간도 함께 지정한다.
4. **한 장짜리 할 일 카드 만들기:** 아이가 스스로 읽고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한다. 학습 사이트의 계획과 카드 내용도 일치시킨다.
5. **음성 AI 를 공부 코치로 활용하기:** 현재 시간, 남은 공부, 휴식 시간, 칭찬 방식, 사용할 언어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6. **반복 작업 자동화하기:** 복습 문제지, 필사 공책, 독서 워크북 등 자주 만드는 자료부터 자동 생성·출력하도록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AI 가 모든 앱에 저절로 접속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자동화는 각 서비스의 지원 범위와 권한에 따라 달라진다. 연결이 어려운 자료는 파일이나 기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AI 가 엄마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로 돌아오게 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공지, 학원 일정, 인강 진도, 숙제, 준비물을 모두 기억하고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노동이었다.

계획표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고, 계획이 어긋나면 다시 만들고, 아이가 실행하도록 계속 확인하는 생활. 어느 순간 공부를 돕는 것보다 공부를 관리하는 일이 더 커져 있었다.

그록봇을 중심으로 이 과정을 연결하면서 달라진 것은 단순한 시간 절약만이 아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자료를 만들고, 아이와 대화하는 역할을 AI 와 나눌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작은 보상, 즉각적인 칭찬, 시각 타이머까지 연결해 아이가 할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과정도 돕는다.

AI 가 아이를 대신 공부해 주지는 않는다. 엄마의 판단과 책임을 모두 가져갈 수도 없다. 하지만 반복적인 관리 업무를 덜어 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일을 확인하고 실행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있다.

“AI 에게 맡긴 것은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둘러싼 반복 노동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잔소리하는 관리자에서 아이를 응원하는 엄마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내가 만든 것은 단순한 공부 계획표가 아니다. 흩어진 교육 정보를 연결하고, 실제 학습 기록에 따라 움직이며, 아이의 자발적인 실행을 돕는 우리 가족만의 AI 학습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계획표에 체크 표시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아이가 자신의 일을 끝내고, 웃으며 영어로 대화하고, 다음 공부 시간을 스스로 약속하는 순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아낀 에너지로 엄마는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본연의 엄마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보다 더 웃음이 많아진 건 엄마뿐 아니라 아이들이었다.